

[종합·해설]

지방선거 D-15

선거인수 광주 101만명·전남 151만명

전국 3,707만명...외국인은 6,746명
17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수가 이번엔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19세 유권자 61만8천52명과 외국인 유권자 6천746명을 포함, 지난 2002년 전국 지방선거 때 보다 4.1% 증가한 총 3천 707만3천636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선거인수를 집계했으며 17일부터 3일간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명부 누락자 구제과정을 거쳐 선거인 명부를 24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19세 유권자는 1만8천938명이며, 외국인 유권자는 102명이다. 구별로는 북구가 45만6천3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30만8천452명)·서구(31만57명)·남구(21만3천738명)·동구(11만2천59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with 3 columns: 선거인수 연령, 전국, 광주, 전남. Rows include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녀비율은 여자 50.8%, 남자 49.2%로 여자가 남자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2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2.6%, 20대 20.3%, 60대 이상 17.2%, 50대 14.6%였고 이번엔 처음으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19세는 1.7%였다.

민주, 이원영 의원직 사퇴 거듭 촉구

민주당은 15일에도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광주 사태 질서유지군 투입' 발언과 관련,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의원직 사퇴와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 5·31 지방선거 광주지역 공천 후보 이동도 이날 공천자 대회에서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5·18 가해자들의 적통인 한나라당에 맞서 위대한 광주정신을 수호해야 할 입장을 망각한 채 5월 영령들과 광주시민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왔다"며 "저희는 국민을 우롱하는 열린우리당의 천박한 작태에 분노하며 현명한 시민이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강진군수 후보 박빙리씨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15일 강진군수 후보에 박빙리(51·청보수산 대표) 도당 상무위원을 공천했다. 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 황주홍 현 군수의 단독 출마로 관심을 모

았던 강진 선거구에 여당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나홀로 선거'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강진군수 보궐선거 우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는 박예비후보는 '당직에서 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당과 지역 정치인의 문화 때문에 나서게 됐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확충 범국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민노당 오창규(북구), 무소속 강도석(남구), 열린우리당 이상갑(광산구), 무소속 신현구(서구), 민노당 강기수(서구) 후보 등 광주시 구청장 후보를 초청, '교육지원조례 제정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모든 후보가 초청됐으나 당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5명이 다른 후보는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 전남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6명 발표

민주당은 지난 13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전남지역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6명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1번은 박부덕(63) 목포시장

부위원장이 선정됐으며 2번은 양승일(62) 전 무안군의회 의장이, 3번은 박해숙(53)전남도당 여성국장이 각각 선정됐다. 또 비례대표 4번은 유영란(58) 전남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 5번은 김소영(47) 전남도당 유세국장이, 6번은 박정주(43) 전남도당 상무위원이 각각 선정됐다.

5·31 지방선거 현장

'선생님 표심잡기' 주력

○...스승의 날인 15일 각 당 전남지사 후보들은 은사를 찾아 인사를 드리거나 논평 등을 통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등 '선생님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서범석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부인 양우영씨와 함께 광양 진상초등학교 6학년 시절 담임이었던 박승배씨의 자택을 방문, 큰 절로 인사한 뒤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민주시·도당 공천장 수여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은 15일 당사에서 한화갑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공천장 수여식을 갖고 5·31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99명의 민주당 공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광주시장 행사장 주변에는 5·31은 '5로지 3번이 1등하는 날'이라는 플래카드가 가득해 출정식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남도당 행사에서 최기인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클린자치'와 매니페스토에 따른 정책선거 실현을 서약하고 광주근교, 전남동부·서남·중남부의 4대 권역 개발 및 '동북아 물류·산업·관광 중심 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 후보 오늘 등록

○...정식 후보자 등록 첫 날인 16일 시·도지사 후보들이 선관위를 찾아 등록에 나선다.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와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박 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일등 광주' 선대위 출범식

○...박광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등 광주'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공동 선대위원장에 신낙균 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조국현 전남대 총동창회장, 선대본부장에 이원구 전 선대 총동창회장을 각각 추대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박 후보는 추진력과 능력을 검증받은 공주의 적자이자 민주당의 적자"라며 "박 후보의 압승으로 오만한 열린우리당을 심판하고 잘사는 공주의 꿈을 실현시키자"고 말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제시

○...전주인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리프트카와 소풍카트를 설치하는 등 양동시장을 비롯한 서구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광주시로부터 12억여원의 재원을 받아 양동시장 지하철도에 리프트카를 설치하고 시장 내에는 소풍카트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또 공동화장실 및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양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아케이드 공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로씨 광역의원 출마선언

○...정영로 전 광주시의회 의원은 15일 광주시 서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무소속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정당을 보지보다는 청렴하고 추진력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 의료안내. 이름다운 의료문화를 열어가자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병원. Includes various hospital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